

사진가사의 단상(?)

호남예술제, 엄마는 사진작가(?)



무대 위에는 경쾌한 피아노 소리, 객석에는 ‘찰칵찰칵’ 카메라 소리.

지난주 11일 호남문화대학교 예음홀에서는 제 53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의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이 경연장을 찾았습니다.

자신보다 한참이나 큰 피아노를 침착하게 다루는 학생, 몇 번이고 연습한 곡이 까맣게 기억이 나지 않아 쫓쫓대는 학생 등 무대 위에는 다양한 모습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색색의 무대 위 모습과 달리 객석의 풍경은 한결같았습니다.

객석의 학부모들은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 무대를 주시하는 이들을 보니 부모의 심정은 한결같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공인 아이들보다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우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랜 대회 역사 동안 무대와 객석의 풍경은 이렇게 늘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 되면서 무대 위 아이의 모습을 담은 이들이 늘었습니다. 아이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 ‘찰칵찰칵’ 울리는 카메라 소리. 며칠을 피아노와 씨름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추억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워직기자 jrwi@

오늘의 유머

▲향수 달래기
“김대리는 해외여행 때면 마누라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는군”
그 얘기를 들은 동료가 궁금해 하며 물었다.
“그 고약한 성질의 마누라 사진을 말인가? 도대체 왜?”
“그 사진을 보기만 하면 집 생각이 싹 달아나 버린다는군”

▲어떤 소원
한 남성이 병원으로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담배와 술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운전은 하시나요?”
“아니요, 전 위험한 일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이나 여자를 좋아하나요?”
“아뇨, 전혀 관심없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럼 무슨 재미로 100년 동안 살려고 하는 겁니까?”

▲속웃 가게
중년의 한 남자가 속웃 가게를 찾았다. 이것저것 고르던 남자는 점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이트가운 좀 봅시다.”
그러자 점원이 대답했다.
“속님, 고급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사모님용으로 드릴까요?”

▲사흘 지난 밥
흥부가 늘부집을 찾아가 말했다.
“형수님, 예들이 배고파 울고 있어요. 밥 좀 주세요.”
“흥, 우리 먹을 밥도 없구먼!”
“찬밥이나 높은 밥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사흘 지난 밥도 괜찮아요?”

▲복수
한 남자가 새벽 4시에 전화 소리에 잠을 깬다.
“당신네 개가 짖는 소리에 한숨도 못 자겠소.”
그 남자는 미안하다고 말을 한 후 전화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다음날 새벽 4시 남자는 어제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희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아내의 건강증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어머!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남편은 놀라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지만 다리미는 꺼져있었다.
며칠 뒤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또다시 외쳤다.
“오늘도 다리미를 깜빡하고 끄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집으로 차를 돌려지만 역시 다리미가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또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나요!”
그러자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트렁크를 열면서 말했다.
“여기 있다. 다리미!”

▲축구가 좋아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 어느 할아버지가 표 두 장을 들고 와서 혼자 자리에 앉았다. 그걸 본 옆 사람이 물었다.
“표는 두 장인데 왜 혼자 오셨어요?”
“지난 50년간 늘 짐사탕하고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죠. 이번에도 표를 일찌감치 사두었는데 마누라가 세상을 떠나 버려서...”
옆사람이 다시 물었다.
“그래도 형제나 자식분들하고 함께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전부다 마누라 장례식에 갔다유.”

리빙 센스

팔뚝살 빼기

▲무릎은 세우고 허리와 엉덩이가 바닥에 밀착되게 한 다음 주먹을 쥐고 천천히 팔을 위로 뺏는다. 10회 정도 반복하면 살도 빠지고 팔의 실루엣도 예뻐진다. 팔을 쭉 뻗으면서 몸을 최대한 늘려주는 주는 등 머리 위로 팔을 자주 올려준다.

▲가슴을 펴지 않고 구부정하게 있으면 어깨나 등 근육에 혈액 순환이 안 돼 살이 찌는 경우가 있으므로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꼭 펴준다.

▲운동을 할 때에는 팔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준다. 운동을 할 때 손목을 밖으로 쭉 밀어내는 스트레칭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팔 부위를 중심으로 운동을 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0일(음 4월 16일 庚申)

子	36년생 가정위주로 진로를 둘러싸고 고민한다. 48년생 속 시원한 결말을 얻고 연결만 진행된다. 60년생 아내가 나타난다. 72년생 남의 말 믿고 좋은 곳으로 변동하려고 하지만 84년생 골짜기도 하지 말고 수양에 정진하라. 행운의 숫자 : 23,43
丑	37년생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는 격이니 경계망동하지마라. 49년생 여성은 아들을 살펴봐라. 아들이 고민하고 있다. 61년생 서행하며 살려가라. 73년생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다. 85년생 주변을 정돈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18,32
寅	38년생 변동에 변동으로 정분이 생겨나지 않는다. 50년생 흉다 길소로 괴로움이 많다. 62년생 우선은 어려우나 길자가 발생할 징조는 있다. 74년생 변동 변화는 마지막 아픔이 더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42
卯	39년생 경계망동하지 말고 관광하면서 계획만 세우라. 51년생 데리고 있던 협력자도 도망간다. 63년생 점차적으로 축소하며 살려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75년생 친구가 반갑게 대하지 못하는 형상과 같다. 행운의 숫자 : 06,28
辰	40년생 이번적으로 정리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점검이 필요할 때다. 52년생 서둘러 말고 정관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더한 객관적인 판단이 시야한다. 76년생 하늘이 협조하니 과욕해도 좋으니라. 행운의 숫자 : 13,41
巳	41년생 매사에 큰 진전은 없고 먹고 노는 유희수가 많은 형상이다. 53년생 큰 고생은 없으나 새로운 투자는 금하라. 65년생 의외의 재가생기고 부부간의 정이 새롭다. 77년생 문제가 발생하니 처신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24,27
午	42년생 어려운 시절이 지나니 향후를 위해서 좋은 설계가 필요하다. 54년생 하늘이 노하니 백사에 도움이 없다. 66년생 하늘이 도우니 수입은 무난하다. 78년생 자녀들의 활동이 활기차고 눈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0,39
未	43년생 대고 없이 진행사가 순조롭다. 55년생 직업이 새로 생기고 가도의 안정이 뒤 따른다. 67년생 마지막 조심을 더하라. 설계는 그러나 진행은 하지마라. 79년생 활동에 불만이 생기고 말조심을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6,22
申	44년생 변동은 금물이고 투자는 순제만 남는다. 56년생 마무리를 잘하고 과욕은 금하라. 68년생 청천이 없어도 내실을 기하라. 80년생 소비가 사상에 가다리고 있는 듯하니 심신을 안정하라. 행운의 숫자 : 15,33
酉	45년생 김기운이 강하니 간장을 살펴봐라. 57년생 하루 종일 조심하라 믿는 도끼가 춤을 춘다. 69년생 흥이 북으로 되는 길목에 섰다. 81년생 코와 피부염을 조심하고 요통 위장까지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 11,34
戌	46년생 주변을 정리하고 절대로 신사는 참아라. 58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내일을 준비하라. 70년생 희비가 생겼으니 무리수는 두지 마라. 82년생 크게 도움 받는 일은 없지만 내용까지 계획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12,30
亥	47년생 과거는 지나가고 안도의 기분이 납니다. 59년생 생소심스런 외출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재물은 궁하다. 71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옛날의 좋은 인사를 찾아보라. 83년생 신중히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8,3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바둑소식

목진석·한종진 왕중왕전 16강

목진석 9단과 한종진 7단이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16강에 올랐다. 목진석은 19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대회 32강에서 오규철 9단을 상대로 222수 만에 불계승을 거둬 16강에 안착했다.

한종진은 이날 이세돌 9단을 308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5집반으로 제압하며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한종진은 아직까지 공식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지난 2000년 비서카드배 신인왕전 준우승, 농심신라면배에 국가대표로 선발됐었다. 전자랜드배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40초 조합기 3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변화는 무조건 싫다 4보(52~78)

전국 아마 최강전 결승 白 박문홍 7단 黑 송흥석 7단

흑 ▲로 조전 거부하고 있다. 송흥석 7단은 애초에는 가벼운 기분으로 흑 ▲를 두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자 마음이 달라졌다. 즉각 흑 53으로 단수치고 순식간에 흑 63까지 교환되었다. 이 결과는 좌변을 돌파하고 흑 63으로 지킨 자세가 좋아서 흑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백 64를 당하고 우변을 76으로 막혀 실속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흑 53은 보류하고 우하기를 '가'로 막아두어야 했었다. 백 78로 붙여 끈질기고도 간간하게 버티고 있는 박문홍 7단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흑 ▲로 조전 거부하고 있다. 송흥석 7단은 애초에는 가벼운 기분으로 흑 ▲를 두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자 마음이 달라졌다. 즉각 흑 53으로 단수치고 순식간에 흑 63까지 교환되었다. 이 결과는 좌변을 돌파하고 흑 63으로 지킨 자세가 좋아서 흑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백 64를 당하고 우변을 76으로 막혀 실속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흑 53은 보류하고 우하기를 '가'로 막아두어야 했었다. 백 78로 붙여 끈질기고도 간간하게 버티고 있는 박문홍 7단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163>

Do you mind if I get something to drink? 뭘 좀 마셔도 될까요?

A : Do you mind if I get something to drink?
B : No, go ahead.
A : What do you have.
B : Coke, milk, and water.

A : 뭘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B : 아, 그러세요.
A : 뭐가 있습니까?
B : 콜라, 우유,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 ~해도 괜찮겠습니까?
= Do you mind if I~?
* 뭘 좀 마셔도 될까요?
= Do you mind if I get something to drink?
* 지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 Do you mind if I come ove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63>

臺風(たいふう)が通(とお)ったんです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A : ゆうべはひどい風(かぜ)でしたね。
B : ええ、臺風(たいふう)が通(とお)ったんです。
A : 臺風(たいふう)だったんですか。
B : ええ、とにかく 恐(こわ)かったですよ。

A : 어젯밤 바람이 심했죠?
B : 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A : 태풍이었습니까?
B : 예, 아무튼 무서웠습니다.

臺風(たいふう) : 태풍
とにかく : 아무튼, 어쨌든
恐(こわ)い : 무섭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풍구워 <140>

这是我妈妈送的, 이것은 고모가 주신 것입니다

A : 哪里买的?
B : 新的商场买的。
A : 你穿的鞋也很漂亮。
B : 这是我妈妈送的。

A : 어디서 산 거예요?
B : 새로운 상점에서 샀습니다.
A : 당신 신발도 정말 예쁘네요.
B : 이것을 고모가 주신 것입니다.

鞋 [xié] 신발
妈妈 [māma] 고모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80>

風流(풍류) 바람 풍, 물흐름 류

풍류(風流)는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이 바람과 물 흐름은 자연과 인간세계를 소통시키고, 다시 인간 사이를 소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선 풍류는 사람이 자연을 가까이하는 것에 사용되어, 자연을 즐기고 흥취를 내며 멋이 우리나라에 것에 비유한다. 따라서 청풍명월(淸風明月)을 즐기면서 시가(詩歌)를 짓고 즐겁게 노는 음풍농월(吟風弄月)의 문화를 풍류라고 하였다. 또 풍류는 주로 음악과 관련되어 사용하였다. 음악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풍류방', 음악하는 사람을 '풍류객'이라고 하였다. 풍류는 정약(正樂)을 가리키는 말로 속악(俗樂)과 구별하기도 한다. 신라시대에 사용하던 풍류도(風流道)란 유(儒)·불(佛)·선(仙) 3교를 포함한 한국 고유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였다.

즉 풍류는 자연과 인생과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삼매경에 대한 미적 표현으로, 문화와 음악을 즐기고, 예술을 감상하며, 여유와 자유분방함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풍류남'이라고 하면 바람기가 있고 돈 잘 쓰고 멋도 아는 사람 즉 '건달'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